



### 대신증권 '더블찬스 이벤트' 실시

대신증권은 온라인 거래매체(HTS·MTS·WTS)를 통해 국내의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축하금, 백화점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더블찬스 이벤트'를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주식거래 하고! 또 하고!', '해외주식거래' 이벤트로 나눠 진행된다.

'주식거래 하고! 또 하고!' 이벤트는 지난 6월 한 달간 주식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ETF, ETN를 포함해 국내 상장주식을 2일 이상 거래하면 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누적거래대금 1000만원 이상 거래해야 하며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5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을 증정한다.

'해외주식거래' 이벤트는 대신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8월 10일까지 미국, 홍콩, 중국 주식을 거래하면 최대 1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김문호 기자

# 韓 채권은 '볼매'... 외국인 투자 110조 돌파

(볼수록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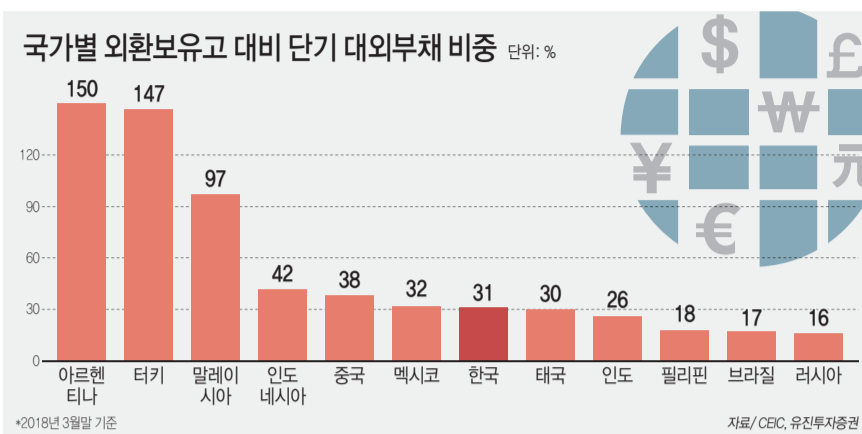
펀더멘털 탄탄·재정거래 매력 높아  
美 금리 격차·달러 강세 주의해야

주요 국부펀드와 중앙은행 자금이 한국 채권시장에 유입되면서 외국인 투자액이 110조원을 넘어섰다. 이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에도 한국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는 것은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탄탄한 데다 '분산 투자나 재정거래' 차원에서 매력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인 전망에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이 커지면서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994년 채권시장 대학살(Bond Market Massacre)'의 추억이 다시 재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이 때문에 글로벌 국부펀드와 중앙은행이 지속해서 한국채권을 사들일지 여부는 선불리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외국인 원화채권 투자 잔액은 110조5620억원이다.



원화채권 투자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말보다 12조원이 늘었다. 차별화된 통화정책으로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됐고,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 우려 속에서도 외국인의 원화채 사량이 지속되고 있는 것.

유진투자증권 신흥수 연구원은 "외국인의 원화 채권 투자는 재정거래에 기인한다"면서 "스와프자금의 불균형으로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낮고 격차가 확대돼 스왑레이트와 내외금리차 격차인 재정거래 유인이 컸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최근 원화채를 매수하는 주요 외국인 주체 가운데 국부펀

드와 중앙은행계 자금도 상당하다. 외국인의 원화채 공급 안정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부펀드로는 노르웨이 연기금(GPFG)과 싱가포르 투자청(GIC),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투자청, 중국 CIC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체력이 아직은 외풍에 버틸만하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포함한 36개 경제전망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9%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6월 외환보유액'은 4003억달러다. 외

환보유고는 외풍의 버퍼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이 더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금 유출 가능성도 점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달러 강세도 걱정이다. 달러가 오르면 해외 빚 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의 '2018년 3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외채무는 4339억 달러로 151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205억달러다. 전체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를 의미하는 단기외채 비중은 27.8%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미 달러가 오르면 신흥국 자금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도 커진다.

외국계 IB 한 관계자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전망으로 내외금리차 역전폭도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재정거래 유인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하나금융투자 리자드 ELS 등 4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쿠폰 금리를 올린 리자드 E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4종을 모집한다.

미국지수(S&P500), 유럽지수(EuroS TOXX50), 홍콩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연5.05%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8679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미국지수(S&P500), 유럽지수(EuroS TOXX50), 홍콩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연5.2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8680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김문호 기자

## 오피스텔 분양 확 줄었다... 수도권 택지지구 '관심'

7~8월에 5020실 물량 공급  
전년비 30% 수준에 불과해

(7~8월 전국 오피스텔 주요 분양 예정 단지)

사업명	위치	총실	전용면적 (㎡)	분양 시기	건설사	문의
더캐런시아 300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상 6-1.2 블록	300	23~39	7월	일신건설	1566-1132
힐스테이트 중동	경기도 부천시 중동	49	84	7월	현대엔지니어링	032-324-4999
강남 루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5	26~42	7월	일광E&C	02-563-1113
동탄역 유럽노르웨이숲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단지 3블록	600	22~33	7월	유럽E&C	1600-0668

\*위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부동산114

올 여름에만 5000여 실의 오피스텔이 공급돼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선보이는 물량이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있는 투자자에게 관심이 쏠린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8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공급 규모는 5020실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만4234실) 30% 수준으로 2013년 7-8월 분양 물량(3679실) 이후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815실 ▲경기 3456실 ▲인천 582실 ▲강원 138실 등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위례신도시, 삼송지구, 동탄2신도시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물량이 이뤄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잇단 주택 규제로 수익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비수기 분양 성적표가 새로

운 투자 패턴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양 물량으로 일신건설은 이달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상 6-1.2블록에서 오피스텔 '더캐런시아 300' 23~29㎡ 300실을 분양한다. 북위례 송파권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직선거리로 약 700m 거리에 있어 광화문, 여의도 등 업무지역으로 한 번에 이동 가능하다. 인근으

로 스타필드 위례가 조성되고, 트랜зит 물도 가깝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경기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중동' 아파트 84~141㎡ 999가구, 오피스텔 84㎡ 49실을 공급한다.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초역세권 단지다. 또 부천시청과 문화예술회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CGV, 롯데시네마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일광E&C는 이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강남 루덴스' 26~42㎡ 195실을 공급한다. 강남역(2호선·신분당선)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신분당선 연장공사로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만나는 골든블록으로 통한다.

유럽E&C는 이달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단지 3블록에서 '동탄역 유럽 노르웨이숲' 22~33㎡ 600실을 공급한다.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모두 갖춰진 복합단지다. SR T와 GTX(예정), 인덕원선(예정) 등이 지나는 동탄역 복합환승센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오는 8월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 S4-2, 3블록에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18~29㎡, 2513실을 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인접해 있으며 신분당선 및 GTX A노선 개통시에는 대중교통망이 더욱 좋아진다. /이규성 기자 peace@

### 키움증권 중위험·중수익 쿠폰 이벤트

키움증권은 중위험·중수익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중위험·중수익 펀드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

키움증권에서 선정한 중위험·중수익 펀드에 1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의 경우 해당 펀드를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2만원권 전용 쿠폰을 제공한다. 대상 펀드들은 변동성 장세에서 높은 수익보다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써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품이다.

대상펀드는 키움더드림다기채증권(채권), 한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채권혼합),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1호(주식),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1호(주식혼합)이다. /손영지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 4차 산업혁명 펀드 수익률 1~3위 싹쓸이

장기적 혁신기업·소수종목 집중투자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소개되며 확산된 개념으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언제 도래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미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투자 영역에서도 관련 산업 투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시장 리더로 떠올랐다.

10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펀드', '미래에셋연급글로벌그로스펀드', '미래에셋글로벌

그로스펀드'의 1년 수익률(이하 6일 기준)은 각각 32.39%, 21.41%, 21.40%를 기록 중이다. 업계 글로벌 주식형 펀드 가운데 1, 2, 3위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혁신기업에 투자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펀드는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본토, 대만, 홍콩 등 범중국의 유망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임과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 국가인 양국에서 혁신기업을 선별하고 있다.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펀드는 혁신과 학기술 발달, 신흥국 중산층 증가,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발전현상에서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혁신기업들에 투자한다. 올해 유입된 자금만 700억원에 육박하며 설정액이 3000억원에 달한다.

두 펀드 모두 개별기업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소수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불확실한 종목을 여럿 보유하는 것보다 확실한 소수의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관행적인 분산투자보다 나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술변화의 핵심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글로벌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TIGER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ETF'를 상장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빌딩. /연철뉴스

움직이고 있다. 작년 8월 1일 상장해 3개월도 안된 시점에 1000억원을 넘는 등 초기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순자산 3000억을 넘었다. 해당 ETF는 설정 이후 약 11%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김문호 기자